

## 일본의 양계업

### 산란계

#### 산란계 농장 살모넬라 오염 조사

살모넬라에 의한 식중독은 양계관계자들의 위생대책의 노력을 더하여 발생건수나 환자수가 대폭 감소하였으나 아직 완전박멸까지는 도달하지 못하였다. 농림수산성은 산란계농장이나 계란의 오염실태를 파악하는 조사를 버리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은 계란의 살모넬라 조사계획을 발표하였다.

살모넬라 조사는 1,000수 이상을 사육하는 약 1,700개의 산란계 농장의 분변(1개 농장당 5점)과 먼지(2점)를 조사하고 이외에도 판매점에서 2,000점(10개들이 팩 2,000개)을 수거하여 난각과 내용물을 조사한다.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살모넬라 조사는 일본에서도 부분적으로 행해져 왔으나 농림수산성이 산란계농장이나 계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처음이다. 계란에 기인하는 살모넬라 식중독의 발생건수는 근년 감소한 경향이 있다. 농림수산성은 이번의 조사결과의 공표에 대하여 쓸데없는 혼란이나 오해를 주지 않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번 검사 결과발표는 식품안전에 관련된 위험관리를 위해 최우선으로 행해야 할 유해미생물의 위험성과 모니터링의 중장기 계획에 의거한 것이다(계명신문 발췌).



윤 병 선

한경대 친환경농림축산물인증센터 전임연구원  
농학박사

#### 환경·안전확립에 인증마크제도 추진

일본계란포장협회는 환경부하가 적고 안전성이 우수한 포장에 대하여 협회에서 인정하는 인증마크를 붙여서 공급하기로 하였다. 재생플라스틱을 이용한 적합제품의 인증마크의 부여에 대하여 4월 20일 오오사카(大阪)에서 개최된 협회의 제1회 정례회의에서 확인하였다. 소비자에게도 환경에도 우수하고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계란용기인 것을 알릴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인증마크의 부여에 기본적인 조건은 (1) 상품(계란포장)의 주원료가 재생수지품이고, 그 비율이 50% 이상일 것, (2) 그 상품을 이용하여 환경부하를 저감할 수 있고 환경보전에 크게 기여하는 것의 2가지 사항이지만, 당연한 것으로서 계란 포장제로서 안전성이 확보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인증마크 사업은 계란포장협회가 수행하고 운영은 협회의 사무국이 담당하며 인증품에 대해서는 인증을 발행하면서 동시에 마크의 사용을 계약하는 것이다. 안전성에 대해서는 협회의 구성원이 일반계란용 10개들이 계란포장에 검체를 협의회명으로 일본식품분석센터에 제출하여 「식품위생법·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기준」과 「살모넬라균/일반세균/대장균」의 검사를 신청한다. 분석센터의 검사로 안전을 확인한 후에 일본계란포장협회와 회원사이에 마크사용의 계약을 하고 회원에게는 「NEPA인증서」를 교부한다. 환경문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안전하면서도 환경보전에 도움이 되는 제품 만들기를 추진하는 계란포장협회의 노력은 업계를 비롯하여 소비자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계명신문 발췌).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지침 검토

농림수산성은 지난 6월 14일 가금질병소위원회를 열어 평상시의 발생예방대책의 철저(농장의 위생관리 등)와 야생조류의 감시제도와 비행경로의 조사연구, 한국 등 아시아지역과의 연대에 의한 면역정보 수집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더 나아가 효과적인 새망의 설치방법이나 소독약의 사용방법을 주지시키고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하여 바이러스의 침입방지에 만전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다.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의 대응에 대해서는 평상시의 대응과 통보를 받은 행정기관(중앙정부, 지방정부, 가축보건위생소)의 대응, 방역조치에 따른 각종 수속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1)발생이 의심되는 사례가 보고된 단계에서부터 쾌속하고 적합한 방역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충분한 연대를 형성하고, (2) 이번 보조적인 진단법으로서 사용된 쾌속검사법(간이키트)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식견 등을 참고하여, 통보직후의 방역대응에 구체적인 활용방법을 명시하도록 하고, (3)이동제한구역내의 농장에 대한 청정성 확인검사, 발생시의 방역조치에 필요한 역학조사, 감염경로의 구명에 필요한 현지 조사 시기 등은, 쾌속한 대응을 위한 관점에서 발생시의 대응체제 정비와 함께 검토하도록 하였다.

발생 후의 이동제한구역 설정이나 예외조치로서 계란의 출하, 도계장의 가동, 부화장의 병아리 출하 등에 대해서는 양계기관단체가 만연방지 조치를 전제로 하여, 양계산업이 붕괴되지 않도록 방역지침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농림수산성은 이러한 의견을 참고하여 금년 여름에 열리는 가축위생부회에서 방역지침의 개정에 대한자문을 얻고, 소위원회에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일반인의 의견을 거쳐 금년 겨울 전에는 방역지침을 개정하기로 하였다(계명신문 발췌).

### 계란과 계육의 고비용 대책

양계산업도 많은 과제를 안고 있으나 직면한 최대 문제는 사료 원료가격의 상승·제품가격의 인하 극복이다. 세계의 곡물가격은 앞으로도 높은 가격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계란·계육의 생산비에 60% 가까이 점유하는 배합사료 가격은 작년 10월 이후 톤당 100,000원 이상 인상되었다. 더욱이 생산에 기본이 되는 병아리나 중추, 생산자재나 설비 포장자재도 중국의 철강수요 증대와 엔화약세, 원유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폭등하여 유류가격의 인상으로 유통비용도 상승하고 있다. 배합사료가격이 약100,000원 상승하면 계란 1kg 당 230원, 닭고기는 정육 기준으로 64원의 비용이 증가된다. 현재에는 사료기금으로 보전하고 있어 비용 상승은 약 40% 정도에서 완화되고 있으나 어느 때인가는 생산현장에서도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다. 식중독 발생방지나 인축공통감염병인 조류인플루엔자 대책도 중요하고 그 기본은 미생물이나 바이러스를 「옹가지지 않기, 증식시키지 않기, 병원균 살멸하기」이다. 농장단계에서는 청소, 소독의 철저는 물론, 쥐 등의 야생동물이 계사내에 침입방지 등 생물안전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계란포장시설이나 도계장에서 품질과 위생대책을 더욱 향상시켜 미생물이나 이물질의 혼입방지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 이와 같이 「농장에서 식탁까지」 일관된 품질위생대책은 소비자와 사용자에게도 확실하게 설명하여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계명신문 발췌).